SK, 윤리경영실 신설 투명경영 강조

검사 출신 김준호 부사장 영입 … 내부·투자기업 감사 및 이사회 지원

SK가 6월1일 사장 직속 조직으로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초대 실장(부사장급)으로 현직 검사 출신인 김준호 서울고검 검사(사시 24회)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준호 실장(부사장)

신설되는 SK의 윤리경영실은 감사팀과 법무지원팀(Legal Advisory Group) 등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전사적 윤리규범 시스템 구축 및 이행점검과 내부감사,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SK 관계자는 "윤리경영실 신설과 현직 검사의 윤리경영실장 영입은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윤리경영실장은 1982년 사시 24회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과학수사과장, 대검 중수3과장 등을 역임하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법무개혁업무를 담당해왔다.

<화학저널 2004/06/0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